

연중 제 29 주 일

기도서 P. 459 A해

제1독서 (이사 45, 1. 4-6

제2독서 (데살로 1, 1-5

복음 (마태 22, 15-21)

숲정이

| | |
|-----|-----|
| 발행인 | 범석규 |
| 인쇄인 | 이수현 |
| 주간 | 조성호 |
| 편집 | 한상갑 |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똑바로 알자.

전 대 복 신 부

요즘 항간에는 “친구교가 왜 정치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의식적으로 해대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종교인은 교회에 충실하면 된다는 이론이다. 그들의 이론을 뒷바침 하는 것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리시오”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권위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국민은 당연히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성서의 말씀을 그 근거로 내세운다. (로마 13장 1-7)

참으로 그럴싸한 이론이다. 위를 유지하기 위해 벼라별 이론을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한다.

그러나 정치는 종교는 그 대상이 바로 인간이고, 인간의 복지를 위하여 참 행복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통적이며 공동 관심사이다. 다만 종교는 현세는 물론이고, 현세적 차원을 넘어서 사후에도 우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와 종교가 완전 분리될 수 있단 말인가? 정치가 인간을 압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할때, 당연히 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느님의 모상대로 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워야 되지 않을까? “사람에게 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5장 29)

성경은 국민이 국가에 해야 할 의무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정당하고 올바르게 해야 할 의무도 말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의 권위에 마땅히 복종해야 할 것이나, 이것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정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억압과 박해와 부패속에서는 교회는 계속해서 소금과 진리의 대변자 역할을 하며 싸워야 할 것이다. (요한 복 13장)

한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카이사르냐”, “하느님이냐”, “정치냐”, “종교냐” 하는 이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등식은 바로 하느님과 세속의 왕을 같은 자리에 올려 놓는 경거망동한 것이다. 어떻게 해서 정치의 절대성과 신성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종교인은 정치인이다 다같이 머리숙여 반성하자. 모든것은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모든것이 다 하느님의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때, 아니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좇아 사는지를 염두에 두고 살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느님의 호감을 사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는 것인지. (갈라디아 1장 10)

<임실 천주교회 주임신부>



성모님의 달

-매과 성월

10월은 매과의 성월이다. 목주의 기도는 오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바치던 개인기도 중의 하나다.

우리 나라에서도 전에는 거의 모든 신자들이 목주의 기도를 꼭 바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바쳤다. 이렇게 목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쳐서 성모님의 친구로 개인이나 단체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좋은 풍습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섭섭하기 한이 없다.

지금 우리 나라는 독립된 지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고 공산치하의 북에서는 교회는 말살되고 백성들은 공포와 고통의 도탄에 빠져있다. 남에서는 부패된 권력에 참여하는 일부 사람들은 물질적 쾌락만을 추구하며 날로 더욱 타락, 부패해가고 있고, 일반 서민들은 삶에 지쳐 바른 인생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태에서 어떻게 한 민족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며 나라가 번영할 수 있겠는가. 경제가 다소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온갖 부정 부패와 비합리적인 상태가 시정되어야 우리 백성이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있고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반(反)복음적인 불합리가 없어져야겠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가난한 노동자, 농민을 위하여 또 부정부패를 거슬러 싸우는 사람들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반그리스도적 생각이 시정되어야 하겠다. 그래야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달부터 다시 열심히 목주의 기도를 바치자. (지학순 주교)

숲정이 산책



축하합니다.



전교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김 영 구 신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르코 16장 15-18절)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아주 떠나게 될 때 부탁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일만 부탁하게 됩니다. 더우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꼭 해야 될 말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랑하시는 모든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여러가지 명령이 많지만 이 명령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높은 지상명령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으로 보아 죄인을 구하시려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믿어야 들어올 수 있는데, 믿음은 그 뜻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들으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1세기의 신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농사하는 이는 농사하면서, 어부는 고기 잡으면서, 어떤 이는 전에 하던 직업을 떠나서 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컨대 베드로와 야고브와 요한이 그러했고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인해 세계가 뒤집히게 되었고,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제일 강대한 제국인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의 첫째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이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남은 구명에 힘써야 합니다.

나는 어느날 강론때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근 1년이 되어가는 동안 아무리 애쓰고 외칠지라도 조금도 우리 교회는 부흥의 빛이 없고, 생명의 빛을 보고 구원의 길을 찾는 심령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그냥 이 교회에서 신부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사도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부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나는 다시 “우리 모두가 사임하고 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맡아 보면 이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해 동안 원로 회장으로 계시던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몇 사람이나 인도하여 입교



김대전 신부님께 정 윤 모

김대전 신부님
저는 파티마 주일 학교 2학년 정 요한입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나라에 천주교를 전파시키고 양떼를 이끌어 가기 위해 먼나라 중국에까지 가셨는지요? 뱃길로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 고생도 많이 하셨고, 굶주림에 고통도 많이 받으셨는지요? 배멀미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배는 얼마나 아프셨는지요? 먼길에 다리는 얼마나 아팠는지요?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카페리호도 있어서 여행하기에 아주 편리해졌답니다.

신부님께서 중국에 가셔서 고생끝에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신부님이 되셨는지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신부님이 되셨는지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이 나라의 불쌍한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크신 뜻을 제대로 이루시지도 못하고 육살이를 하셨는지요? 신부님을 잠속에 넣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죄없는 사람들을 잠속에 넣었다니요? 잠속속은 얼마나 답답하셨지요?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모든 고통 참으시고 끝내는 이 나라 양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셨는지요?

신부님, 훌륭한 신부님! 신부님께서 홀리신 피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 천주교의 뿌리는 깊이 내렸답니다. 제가 보미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신부님의 덕택이라고 생각하여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우리 파티마 성당은 한살도 못되는 아기 성당입니다. 우리 성당이 어서어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늘 나라에서 빌어주세요.

1978년 9월 10일 정요한 올림
(파티마 주일학교 2학년)

시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 회장은 머리를 숙이면서 “신부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요셉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물어도 사도회 임원 가운데 거의 한 사람도 개인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자, 보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임원으로 있으면서 이 명령을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교역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도회 임원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이 명령에 먼저 순종하자”고 의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교회에는 <전교의 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웃과의 만남에서 <다른 이야기>들만 나누고 <하느님 말씀>을 나누지 못했음이 부끄러운 일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번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셨습니다. 영혼 구하는 복음 전파에 힘써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며, 믿는 이들의 첫 사명입니다.

(환) 호남지구 마리아 빨리 1978 (영)

78. 10. 28 ~ 29, 전주 성심 여중고 강당

레지오 마리에 파티마의 모후 꼬미시움

- 김제 평화의 모후 꾸리아(Cu).
- 무주 병인의 나옴Cu.
- 이리 치명자의 모후Cu.
- 팔마 그리스도의 도움Cu.

- 남원 칼렐의 모후Cu.
- 삼례 셋별의 모후Cu.
- 정읍 사도의 모후Cu.
- 합월 그리스도왕의 모후Cu.

- 둔율동 루르드의 모후Cu.
- 월명동 바다의 별Cu.
- 중앙 오월의 마돈나Cu.

□공산권 교회의 수호자□



새 교황 요한·바오로 2세
(POPE JOHN PAUL II)

잠간 사이에 두 분의 교황을 잃은 슬픔을 씻고 새로운 희망에 부풀게 하는 제264대 교황이 지난 10월 16일에 선출되었다.

공산국가인 폴란드의 보이틸라(Wojtyla Karol) 추기경은 그의 교황명을 요한·바오로 2세로 택했다. 공산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또한 이탈리아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놀라움과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새 교황성하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자

□약 력

- 1920. 5. 18 남부 폴란드의 바도비체에서 출생
- 1946. 11. 1 사제 서품
- 1958. 7. 4 주교 서임 (크라코프 보좌주교)
- 1964. 1. 13 대주교 서임 (크라코프 대교구)
- 1967. 6. 26 추기경 서임

□첫말씀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17일, 시스틴 성당에서 비밀선거회의(콘클라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미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지나친 급진주의자들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전통주의자들에게는 반대하겠다.”

—“종교 및 도덕이 위협에 처한 잠정적인 정치문제에는 관여할 것이다.”

—“불의와 차별대우에 억눌린 모든 자들을 도울 것이다.”

—“나의 재임기간중 인간사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영적태도를 강화하겠다.”

□모 습 (메스롭이 전해주는 모습)

공산압제서 교회정신 신장...일찌기 공산주의의 무신론적 교육을 신랄히 비판하고, 공산세계에서의 종교자유도 요구했다. 그는 공산국가의 기독교 신자들의 사명은 “주변사회의 계 위함들로부터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신도들은 국가가 통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굴종적인 인간화시키려는 노력에 대항, 교회의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구와 화해·신앙자유 고양에 도움...각국 및 중요 교회단체들은 놀라움과 환영을 표시했으며, 이를 계기로 동부 유럽의 공산국가들에서 신앙의 자유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바오로 6세에 의해 시작되었던 동부 유럽과의 화해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자 문제·인권엔 큰 관심...한때 노동을 하면서 노동자 오락교육 센터를 세운 그는 폴란드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신도 비신도를 불문하고 모든 폴란드인의 인권을 지지해 왔다.

외국어 유창·시인·교수·스포츠맨...철학박사와 신학박사 학위를 가진 그는, 이탈리아·영어·불어·독일어를 말할 수 있다.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친 그는 시에 관심이 깊어 많은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나찌스 점령기간동안 지하 연주단체에서 배우로도 활약한 그는 스포츠에도 조예가 깊어 카누·스키·히치 하이킹을 즐긴다.

□공산국가인 폴란드는 어떠한 나라인가?

1944년 공산당이 임시정부를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공산치하에 있으나, 56년 포즈나니 기관차 공장의 노동자를 필두한 반공투쟁 이후, 스탈린 노선을 반대하는 공산국가이다. 고골카가 집권한 이래 다소 부드러운 정치를 하고 있어, 국민의 90%는 계속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으며, 종교교육도 허용되고 있다.

요심이 (273) 김병오

고수 1근에
4천원이라

물가가 올라
서민들은
살수가 있나?

공천심사가
어찌구
저찌구...

물가안정도
못시키면서
감투나뉘출
일만하고
있으니...

해성 중·고 동창회
 □때 : 1978. 10. 29(일)오전11시
 □곳 : 모교 과학실
 □안건 : 임원개편, 동창회보발간
 회원명부작성, 기타
 □회비 : 2,000원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정읍대리점)
 정읍전화 주간2719번 야간 4195번
 대표 : 교아오스딩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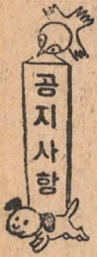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칠
전주 광고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 8 5
 ◎ 감초당 약국 앞

☆ 사진예술 창조의 집 ☆
현대칼라
 특 약 점 **현대카메라 D·P점**
 現代人은, 現代칼라로,
 現代카메라 D.P점에서
 현상·인화·확대·카메
 라 대여
 교우님들께 특별할인 합
 니다
 T. ③ 6360
 (전주 동양아파트 정문앞)
 代表 홍섭초(그레고리오)

★Y셔츠·잠옷·메리야스·양말
속옷일절★
 혼수용 전문취급·교우 특별염가
보 금 상 회
 (전주 남부시장 포목부)
 전화 ② 4058 자택 ② 6839
 임 유 창 (베드로)

개업 안내
 시대 중앙동에서, 재단 7년 경력으로
 교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하
 기 장소에 개업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과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용 희 (가브리엘)
 ☎ 2-6222 (전북신문 사거리)
에이스 양복점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오늘은 전교 주일-전교회원이 됩시다! (회비-최소 500원, 특별회비-2,000원 이상)
2. 호남지구 마리아 빨리-28(토) 오후 3시~29(일) 오후 4시, 성심여교 강당에서
3. 성프란치스코 재속 3회 회합-28(토) 오후 2시, 노송성당에서, ※ 79년도 운영계획 심의
4. 전주 교도소 영세 및 견진-26(목) 오후 2시, 전주 교도소에서
※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뜻을 가지신 분은 교구청 사복국으로 연락해주세요
□ 버스 이용안내-26일 오후 1시반, 전동성당에서 출발
5. 전주 시내 초분당 성가연습-23(월) 오후 8시, 가톨릭센터 ※ 지도-정배현 신부
□ 소신학교 입학 희망자는 본당 신부님께 문의-성소 제발은 우리의 사명!
□ 해고된 가톨릭 노동자들을 도읍시다...성금 접수-윤정이 편집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택
보좌 신부 송영복
사도 보좌 신부 이복석

1. 전교주일: 전교회원이 됩시다
회비: 보통회원 500원, 특별회원 2,000원 이상
2. 성심부녀회 및 어머니합창단 피정
일시: 25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노송성당 (프란치스코 집),
지참물: 성경, 성가집, 회비: 1,000원
3. 유아세례: 27일(금) 오전 11시
4. 마리아 빨리 일시: 28일(토) 오후 3시~29일(일)
장소: 성심여교 강당
5. 전례담당(공식미사)
22일: 복사-김낙준, 김정생, 해설-함문권
29일: 복사-함문권, 장남수 해설-임주택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전교주일: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회비 500원 이상)
2. 애령주일: 10시미사후 불쌍한 영혼 위해 기도합시다
3. 축! 결혼
일시: 10월 27일 오전 11시
신랑: 이완남군, 신부: 정영희(세레나)양,
일시: 10월 29일 12시
신랑: 박병락(아오스딩)군, 신부: 차명정(모니카)양
신랑: 김배근(스페리노)군, 신부: 유순복(반셀라)양
4. 신축헌금: 13반-최근섭(5,000원),
기타-이용완(100,000원), 김정수(10,000원)
□ 지난주 봉헌금: 40,69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오늘 전교주일: 전교회에 가입합시다 회비500원 이상
2. 요안히 윌레히: 다음주일(29일)
3. 유아세례: 10월 29일 공식미사 중
4. 청년회 임원: 회장-한준호, 부회장-김성자, 총무-오창석, 서기-김종남, 회합-오후미사후(유치원)
5.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6시 30분, 공식미사 오전 10시, 오후 7시
평일-아침 6시, 30분·오후 7시
□ 지난주 봉헌금: 98,230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택

1. 전교회에 가입합시다: 회원의 의무
500원 이상 회비를 납부함
2. 각 분과 위원회 소집: 선교분과 23일(월),
전례분과 24일(화), 봉사분과 25일(수) 매일 오후 7시 반
3. 혈제회 윌레히: 다음주 12시에 치명산에서 미사있음
4. 중노 2가 가정방문: 24~25일 오후에 합니다
5. 첫 영세례 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 8시~9시까지
대상: 중·고생 및 일반 탐이 나오세요
6. 중학생 교리: 매주 토요일 학생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63,99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중

- ※ 10월 목주성월: 교무금 완납의 달
1. 예비자 교리: 주일(일반·학생) 수·목 저녁미사 후
2. 마리아 빨리-민박 봉사자 신청
3. 교도소 영세: 26일(목) 오후 2시
4. 성당 미화 기념 헌수(각 가정)
5. 성령기도회: 매 금요일 밤 7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167,318원 교무금: 245,00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강덕행
사도 회장 유제상

1. 오늘은 전교주일: 모든 신자들은 의무를 다하도록...
2. 어린이 추계소풍: 29일 오전 9시 본당출발 도시락지참
3. 젊은이 단합대회: 11월 5일(35세까지)
회비: 1,000원, 접수처: 보좌신부님 사무실
4. 밀린 봉헌금을 청산합시다
예산액의 47.9% 밖에 납입되지 않았음
5. J.O.C 근로 청년모임: (목) 저녁 7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81,115원

(파티마)

전화 ②7249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 회장 채수현

1. 축! 영세식: 새 삶을 택하신 형제자매여,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최윤주, 이규성, 황영순, 이정숙, 나병희, 강수자,
강순옥, 지근래, 양인순
2. 예비자 교리: 주일 저녁 7시 미사후로 변경
3. 수녀원 분원신설: 12월 초에 본당 수녀님이 오십니다
4. 주일학교: 토요일 오후 3시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5. 중학생 모임: 주일 10시미사 후(교리실),
고등학생 모임: 당분간(목·금·일)
학생 모듬이 이 모임을 잊지마세요
6. 중·고생 지도자 회합: 매주 오후 6시
7. 어머니미사: 금요일 오전 10시
9. 가정방문 기도: 서완산 1,2,3,4구, 효자주택, 공무
원 아파트, 효자아파트 1,2단지, 에그린아파트 방문
기도를 마쳤음. 빠진 가정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8. 교무금 납입: 장영식(2,000원), 박순주(4,000원),
김복남(4,500원), 김태화(2,000원), 최성전(2,000원)
조봉희(3,000원), 송진수(3,000원)
10. 수녀원 증축기금: 김복남(5,000원)
□ 지난주 봉헌금: 32,36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부녀회 윌레히: 다음주 공식미사후
2. 반회장 윌레히: 28(토) 저녁미사후
3. 보좌신부 사제관: 강당에 공사중입니다
비품: 케비넷·농(150,000원), 책상(50,000원),
웅점셋트(150,000원) ※ 사무실에서 접수
4. 주일학교 가을소풍: 오늘 공식미사후
장소: 덕진동물원, 준비: 도시락, 차비, 입장료
5. 오늘은 전교주일: 회비: 500원, 특별회비: 2,000원
6. 성지순례: 부녀회원, 레지오마리아에단원(옥외행사계)
일시, 10월 24일(화), 장소: 미리미 복사 김대건 신
부 성지 (현충사경음) 회비: 2,500원 선착순마감
7. 1일교장 오늘: 임한전 형제, 다음주: 노한규 형제
□ 지난주 봉헌금: 118,235원